

Issue Comment

2024. 9. 23

항공

보잉, 노사 갈등 격화

●
운송

Analyst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보잉 노조, 16년만의 파업

보잉 노사 협상이 결렬되며 공장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함. 보잉의 파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만임. 파업 참가자는 3만명 이상으로 보잉 전체 직원(17만명) 중 약 18% 수준임. 노사 갈등의 쟁점은 임금 인상임. 노사는 지난 8일 4년간 임금을 25%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조를 만족시키지 못함(40% 인상 제시)

사측, 무급 휴직으로 맞불

사측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함. 파업 영향을 받는 부문 직원들이 4주마다 1주일씩 무급휴직을 진행함. 관계자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고, 임원급여는 25% 삭감될 예정으로 언급됨. 그 외에도 채용 동결, B737·767·777 기종에 대한 부품 주문도 중단할 예정임

보잉은 파업에 따른 추가 손실을 대비하는 조치로 설명함. 항공 제조사들은 기재 인도 시 구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받는데, 파업으로 737Max와 777 등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임. 보잉은 지난 2분기에만 당기순손실이 14.4억 달러에 달함. 공급망 문제, 매출 지연, 비용 증가로 적자규모는 확대되고 있음

2025년에도 인도 지연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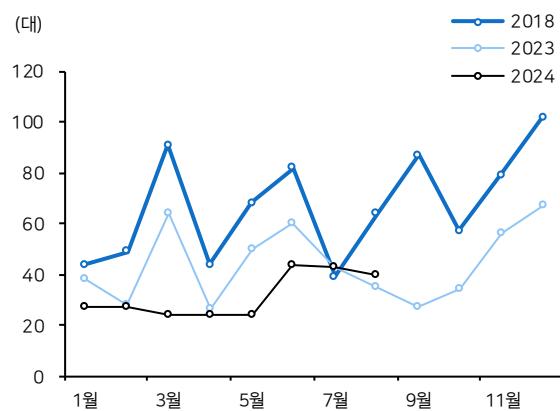
2024년 8월 누계 기준 보잉은 253대, 에어버스는 447대를 인도함. 2018년 동시 인도량과 비교 시 보잉은 47.3% 하회, 에어버스는 3.0% 상회함. 보잉은 기체결함, 미국 규제당국 조사, 대대적 경영진 개편 등을 겪으며 팬데믹 이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남은 협상 일정 없이 생산 중단이 유지되며 기재 인도 추가 지연이 예상됨

표1 보잉 2024년 노사갈등 타임라인

일시	내용
2024-08-08	노사 4년간 임금 25% 인상 내용의 잠정합의안 도출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
2024-08-13	노조, 파업 개시
2024-08-16	사측, 파업 장기화 대비 비용 절감 조치 시행 발표
2024-08-17	노사 협상 재개
2024-08-18	협상 성과 없이 종료
2024-08-20	보잉 CEO, 파업 종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의 사내 메시지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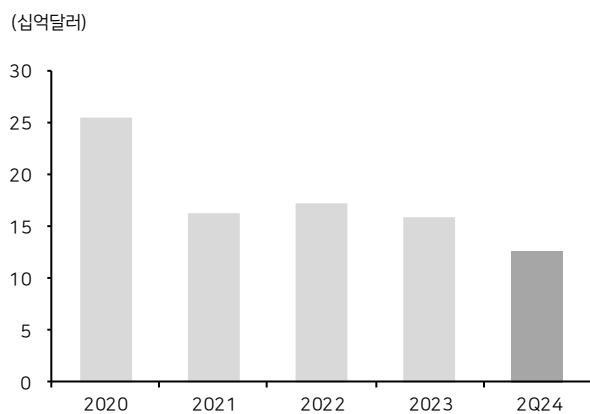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보잉 인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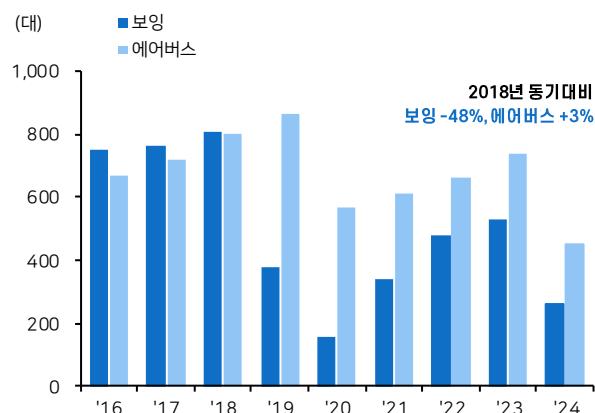
자료: Boein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보잉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



자료: Boein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보잉과 에어버스 인도량 추이



주: 2024년은 8월말 기준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2018년 이후 우리나라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주문건

주문일자	주문자	기종	수량	비고
2018년 11월	제주항공	B737-Max	40	
2019년 07월	대한항공	B787-9	10	
2019년 07월	대한항공	B787-10	10	
2020년 03월	한국정부	B737-800A	6	
2023년 07월	대한항공	B777-9	20	2034년까지 도입 MOU
2024년 07월	대한항공	B777X	20	
2024년 07월	대한항공	B787-10	20+10	옵션 10대

자료: Boein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